

명칭·주제만 새겨...역발상 통한 ‘여백의 미학’

‘2026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호추니엔 Ho Tzu Nyen)가 이제 개막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광주비엔날레는 9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비엔날레 주전시동에서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를 주제로 열리게 되며, 주전시와 함께 진행돼 왔던 파발리온프로젝트(국가관)는 30여국 규모로 광주시 일원에서 선보일 예정인 가운데 점차 개막을 향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런 가운데 개막 한달(5일) 앞으로 바짝 다가온 광주비엔날레를 앞두고 둘러봤다. 광주비엔날레의 분위기를 현장에서 가장 느낄 수 있는 것은 대형 현수막 부착이다. 크기는 가로 29.5m×세로 15.8m, 이 정도 크기의 현수막은 광주시 내에서 흔하게 볼 수 없다. 초대형이어서 다. 이 초대형 현수막은 광주비엔날레 때



대형 운송 트럭 위 하역을 기다리는 작품.

개막 한달 앞둔 ‘2026 광주비엔날레’ 가보니

본전시장 외벽 대형 현수막 부착 흰비탕 중앙부 ‘비움’

가로 29.5m×세로 15.8m 달해...핵심 알리기에 주력

획일 담안보다 관람객 사유 선택...작품 운송 하역 분주

전시를 한달여 앞두고 본전시장 외벽에 부착돼 전시가 끝날 때까지 관람객들의 눈을 붙잡게 된다.

특히 광장에 온집한 관람객들의 눈에 띄는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올해는 대형 현수막 중앙이 비어 있다. 흰비탕 위쪽에는 몇번 째 비엔날레인가를 알리기 위한 명칭이 새겨졌고, 아래쪽에는 주제 만이 새겨졌다. 그리고 빈 상태로 내걸렸다. 누가 보

더라도 복잡하지 않고 비어 있어서 단출한 맛은 있다. 그런데 초대형 현수막은 너무 큰 여백으로 부착돼 있어 오가는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험잡게 현수막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것은 아닐 것이다. 광주비엔날레재단 측은 거두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 있을 터다. 바로 ‘여백의 미학’이었다.

그 저의가 궁금해서 운범도 대표를 찾아 이를 묻자 “무슨 규격을 넣어두고 변화하라고 하면 변화가 되겠냐”고 답했다. 그의 행간에서 ‘여백의 미학’을 직감할 수 있었다. 윤 대표는 대형 현수막과 관련, 자신의 입장을 명료하게 밝혔다.

윤 대표는 “원래 현수막 시안은 이런 저런 다양한 안이 제작돼 제게 가져왔는데 내용이 많았다. 그래서 변화가 주제인데 구체적인 문장이나 이미지를 넣게 되면 어떤 규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뭘 변화하라는 거냐. 차라리 여백



제16회 명칭과 주제가 명기된 대형 현수막이 본전시관 외벽에 부착된 광주비엔날레 전경.

을 두는 게 의미나 상징성이 클 것 같았다”면서 “결국은 흰 바탕에 검은 글씨, 제목만 새겼고 흰 천에는 그거밖에 없다. 그냥 핵심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서 현수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무엇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시안을 만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변화라는데 주제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차라리 이럴 때는 역발상으로 가보는 것이 변화라는 생각을 했다는 반응이다. 역발상을 발현했기에 원색톤의 강렬한 이미지나 활자 등 많은 내용보다는 비움으로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관람객들에게 작품 감상의 추를 넘긴 셈이다. 어떤 규격 혹은 획

일적 담안 제시를 하기보다는 관람객들 스스로 자신만의 사유로 예술작품에 대해 접근과 이해를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아울러 개막 때까지 비가 오고 전혀 생 각못한 태풍 등 자연현상에 의해 여백이 지저분해질 수 있지만, 자연이 하는 일이라서 그대로 놔둘 생각이라고도 밝혀 이번 현수막의 저의에 대한 소신을 드러냈다.

윤 대표는 “(홍보효과를 떠나서) 오히려 색채가 없는 것, 문장이 없는 것이 하나의 정통 방법일 수 있지 않겠냐”고 덧붙혔다. 다만 윤 대표는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일정이 자주 차질이 생기고 운송비가 많이 드는 등 애초 계획하고 자주

어긋나는 것들이 생긴다며 걱정의 한 단면을 내비쳤다.

대형 현수막과 함께 작품 운송 차량들이 1전시장 입구에 모여 있다. 그렇지 않느냐로 압박한 분위기를 유추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 방문했던 날에도 대형 운송 차량 3대에서 작품 하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지게차가 분주하게 움직였다. 빈 전시장이 점점 들어차고 있는 느낌이다.

올해 광주비엔날레는 전시 공간의 파티션과 도색 작업이 끝났고, 큰 설치들이 시작되는 등 한층매 더위 속 서막을 향해 서서히 껌껌음을 옮기고 있는 듯한 형국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배우·관객 가까이 호흡...‘제29회 광주소극장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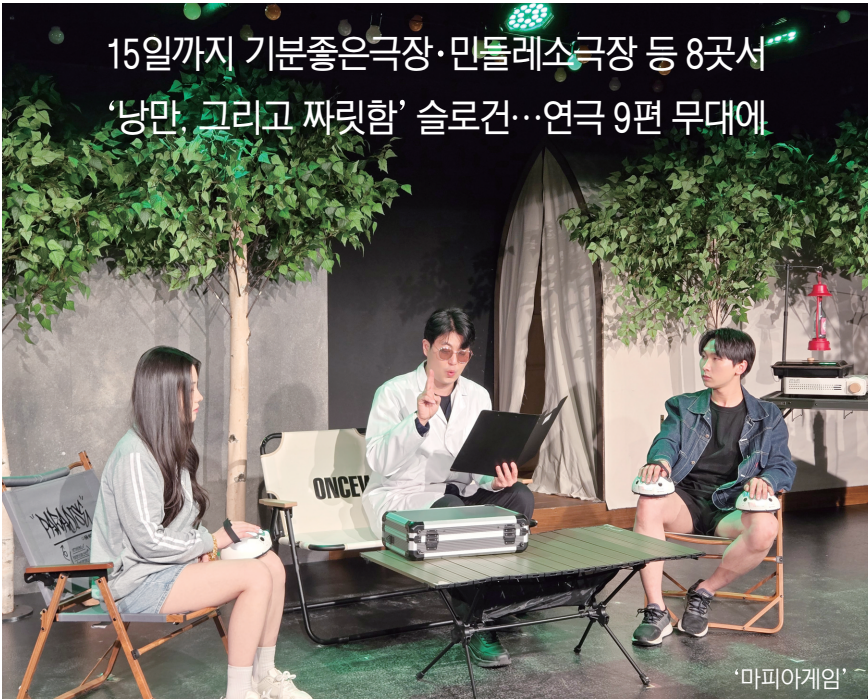
한여름 광주 곳곳의 소극장이 연극과 미술, 인형극, 음악으로 관객들을 맞이한다. 대형 공연장과는 다른, 가까운 거리감 속에서 배우의 호흡과 무대의 열기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지역 공연예술 축제가 막을 올린 것.

사단법인 광주소극장축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회는 오는 15일까지 기본줄은 극장과 공연일변지, 예술극장 통, 지니아트홀, 민들레소극장, 광주아트홀, 아트스페이스 흥학관, 예민소극장 등 광주 8곳에서 ‘제29회 광주소극장축제’를 갖는다.

올해 슬로건은 ‘낭만, 그리고 짜릿함’이다. 연극 5편, 미술 1편, 어린이 인형극 1편, 음악회 2편 등 모두 9편이 무대에 오른다. 초청공연 2편과 공식 참가작 7편으로 구성됐다.

먼저 초청공연으로는 씨어터컴퍼니 윗끼의 ‘양팔저울’과 극단 벅수골의 ‘봄이 오면’이 무대를 채운다.

‘양팔저울’ (12~13일 공연일변지)은 기후변화와 식량 부족으로 인류가 위기에 놓인 미래를 배경으로, 인간의 가치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묻는 작품이다. 극단 벅수골의 2인극 ‘봄이 오면’ (14~15일 예민소극장)은 밀양향교에 전해지는 설화 ‘조선 선비와 매화 이야기’를 모티브



로 현대인의 삶과 사랑, 기억과 망각을 다룬다.

앞서 지난 1일 공연일변지에서 열린 교육단 파랑새의 어린이 인형극 ‘속임수에 걸린 피보토끼’는 이슬우화 ‘토끼와 거북이’를 바탕으로 정직과 용기의 가치를 전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팀플레이예술기획의 ‘마피아게임’은 오는 15일까지 기본줄은극장에서 선보이

다. 코믹 참여형 추리극인 이 작품은 캠핑장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배경으로 관객이 사건의 실체를 추리하고 범인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니컬처의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고’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지니아트홀에서 열린다. 유명 배우를 꾸며서 서울로 향한 지방 청년이 아르바이트와 출연료 미지급, 공연 취소 등을 겪는 과정을 담는다.

극단 청춘의 ‘유미래 실종사건’은 7일부터 8일까지 예술극장 통에서 열린다. 유흥업소 살해사건을 목격한 뒤 숨어 지낸 인물의 기억을 따라가며 사건의 진실을 추적한다.

엘비스매직의 ‘로봇레이저매직쇼’는 8일부터 9일까지 민들레소극장에서 펼쳐진다. 레이저와 로봇, 드론, 홀로그램, 마술, 버블쇼를 결합한 융복합 공연으로 첨단 기술과 예술적 상상력이 어우러진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재즈와 피아노 무대도 마련된다. 12일부터 15일까지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에서는 광주아트컬렉티브의 ‘광주소극장페스티벌’이 펼쳐져 재즈 앙상블과 가스펠, 와이어의 무대를 만날 수 있다. 12일부터 13일까지 광주아트홀에서는 크리에이티브라이트의 ‘피아노&캔들 콘서트’가 열려 피아노 즉흥연주와 촛불을 활용한 음악회를 선보인다.

임흥석 광주소극장협회장은 “올해 광주소극장축제는 관객들이 소극장이라는 가까운 공간에서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호흡하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손끝으로 경험하는 ‘아시아 예술체험’

ACC, 8~12월 7개 강좌 운영
시민, 기관·단체 참여자 모집

아시아의 다채로운 전통문화와 생활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은 8월부터 오는 12월까지 2026년 하반기 ‘ACC 아시아 예술체험’을 운영한다. ‘ACC 아시아 예술체험’은 아시아 각국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생활 문화를 탐구하고, 전통 기법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보는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 하반기 교육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대상 교육과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단체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ACC는 이와 함께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과 지역사회 포용성 제고를 위해 기관·단체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단체를 상시 모집한다.

먼저 시민 대상 프로그램은 오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운영된다. 아시아의 공예와 회화, 정원문화, 인장 제작 등 전통문화의 다양한 영역을 체험할 수 있도록 모두 7개 강좌로 구성됐다.

주요 강좌는 아시아 나전칠기 문화를 탐구하는 ‘아시아 공예’,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튀르키예 마블링 회화를 배

우는 ‘튀르키예 에브루아트’, 전통 민화를 재해석하는 ‘동아시아 전통회화’ 등이다.

또 인도네시아 전통 염색 기법을 체험하는 ‘인도네시아 공예’, 한국 전통 채색(彩箱)의 미학을 현대적 소품에 녹여내는 ‘아시아를 엮다’, ACC 도시 정원을 산책하는 ‘아시아의 정원문화’, 자신만의 인장(印章)을 제작하는 ‘아시아를 새기다’도 마련된다.

기관·단체형 맞춤형 프로그램은 지역 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진행된다. 오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이뤄지며, 장애인, 시니어, 결혼이주여성, 군 장병, 외국인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기관과 단체가 대상이다.

기관·단체형 교육은 ‘튀르키예 에브루아트’, ‘아시아를 새기다’, ‘아시아 공예’, ‘인도네시아 공예’, ‘동아시아 전통회화’ 등 모두 5개 강좌로 구성된다. 취약계층의 공공 교육 접근성 확대를 위해 교육비와 재료비는 전액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과 단체는 우선으로 사전 문의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반기 시민 대상 교육 참가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ACC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수강료는 회당 5000원이다. 기관·단체형 접수와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ACC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문화교육과로 전화하면 된다. 문의 062-601-4324.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스러져가는 삶·세월 소환...자연의 순환 ‘상기’



‘삶과 죽음이 예 있으며-I’

고영종 개인전 오늘부터 서울 G&J갤러리
‘흑백 이야기’ 주제로 40여점 출품 선보여

고영종 작가의 개인전이 5일부터 오는 10일까지 ‘흑백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서울 인사아트센터 3층 G&J갤러리에서 열린다. 출품작은 40여점. ‘흑백 이야기’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이 어두운 흑백의 그림들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는 말해야 할 듯 해서라고 한다.

작가에게 흑백은 즉각적인 비장함의 힘을 상징한다. 특히 흑백으로 압축된 색상은 변잡한 결과지들을 털어내고 바로 대

상과 마주하게 하며, 대상을 제외하고는 배경들을 정리하고 비워내는 화면의 구성 이야기랄도 그 느낌을 더욱 증폭시킨다. 이 같은 주제의 압축과 비워진 여백의 구성은 아르키볼로 그려져 있지만 마치 수묵으로 그려진 한국화와 닮아있다.

아울러 이번 전시에서 보여지는 물의 흐름과 설계 등은 ‘흑백 이야기’라는 전시 주제에 맞춰 흑백으로 간결하고 진중해진 대상의 선택과 더불어, 작가가 계속 추구

해온 시간의 흐름이 표현된 작업들이다. 이는 스러져가는 삶과 세월을 소환하고, 종내에는 자연의 순환을 상기시킨다.

현재의 영동한 불꽃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흑백의 정지 사진으로 포착,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흑백 그림들의 시작점으로, 그 흑백 화면 속에 등장하는 원색의 존재들이 흑백으로 가라앉아 아쉬워 잠시 떠오른 기억의 편린 줄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사유는 그냥 그림 출발점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

고영종 작가는 전남대 미술교육과를 졸업, 개인전 22회와 홍콩 컨템포러리 아트 페어, 인천아시아아트쇼 등 다수의 페어 및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한국미술협회 이사와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오는 12월까지 2026년 하반기 ‘ACC 아시아 예술체험’을 운영한다. 사진은 인도네시아 전통 염색 기법을 체험하는 ‘인도네시아 공예’ 진행 모습.